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잠시 중단했던 뮤지컬 '홍도1589' 공연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뮤지컬 '홍도' 공연 실황.

## 뮤지컬 '홍도1589' 공연 재개

전북문화관광재단, 이달 한달동안 매주 수·토요일만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잠시 중단했던 뮤지컬 '홍도1589' 공연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뮤지컬 '홍도1589'는 지난 5월 29일 2020년도 첫 공연을 진행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공연을 잠정 중단했다. 이번 공연재개는 6월 13일을 시작으로 6월 한 달 동안 매주 수·토요일만 공연 횟수를 축소해 진행하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관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홍승광 추진단장은 "안전한 공연을 위해 공연 일간 거리 두기로 공연을 쉬는 일정한 공연장 방역 관리를 철저히 진행해 안전한 공연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며, "향후 순차적인 공연 일정도 관객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 일정 및 예매는 네이버 티켓 및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show/hongdo)와 상설공연추진단(063-230-748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결따라 마음새김' ... 진안 서각협회 회원전

진안군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전북예술회관 1층에서 서각협회 회원전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서각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개막식은 없으며 '결따라 마음새김'을 주제로 전시만 진행된다. 진안서각협회 회원 28명의 손길을 따라 각 작품에 작가의 마음과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다. 임채순 한국서각협회 진안지부장은 "이번 전시회는 한 토막의 나무를 정성스럽게 썰어내고 톱다듬어, 생명감(生命感)을 불어넣은 진안 서각회원들의 작품이다"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깊은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 보겠다"고 밝혔다. 진춘성 군수는 "서각회원들의 활발한 활동과 수준 높은 전시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더욱 사랑받기를 응원하며, 진안군도 지역 문화 예술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김우영 전주교대 총장, 무형문화재 전승자 대상 특강

전주교육대학교 김우영 총장이 9일 국립무형유산원을 방문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대상 '한국의 문화와 역사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교대에 따르면 국립대학 육성사업 중점 추진과제로 지자체 연계 교육·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사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립무형유산원과 공동교육과정으로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초·중·고 현장에서 무형유산 전수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무형유산 전수 교육 교수역량 강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김우영 총장은 "무형유산의 보존을 위해 전승 방법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무형유산의 전수가 원활하도록 전승자들의 교수법 및 학습법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한편 전주교육대학교와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 전수교육 교수역량 강화과정 공동운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정식체결 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김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고창농악·전통연희 서정적인 음악의 만남

'운곡로맨스-생명의 날개' 고창농악보존회, 13일 공연

(사)고창농악보존회(회장 구재연)의 2020 한옥자립활용 아간상설공연 Green 감성농악 '운곡로맨스-생명의 날개'이 오는 13일 오후 8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고창 운곡로맨스합창단은 영광원자력발전소 냉각수를 위한 담수로 인해 폐경된 옛 논밭에 형성된 자연습지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운곡로맨스 : 생명의 날개'은 현 운곡로맨스합창단이 형성되기 이전의 수물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오메이골 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선남선녀의 사랑이야기가 중심이다. 여기에 고창농악을 비롯한 사자춤, 부채춤, 지전춤, 용기놀이 그리고 판소리와 서정적인 노래 등 다양한 볼거리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구재연 회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공연이 진행될 수 있어 기쁩니다"라며 "이번 공연의 다양한 볼거리와 사랑이야기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마음의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 전북도문화관광재단, 고창군이 주최하고 (사)고창농악보존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하는 이번 상설공연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8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8월 29일까지 매주 진행된다. 휴가철 맞이 금요일 특별공연은 7월 24일, 31일 8월 7일, 14일 총 4회가 진행된다. 올해 공연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150석에서 축소해 50석으로만 운영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간재 초상화

담양전씨 후손, 부안군에 기증  
채용신의 1911년작으로 판단돼

부안군은 지난 9일 부안에 거주하는 전씨와 그 어머니(정씨)에게 집안대대로 물려받은 간재초상화를 기증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초상화는 어진화가로 알려진 채용신 화가의 1911년작으로 판단되며, 간재전우선생의 70歲像상이다.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학술가치가 높은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전씨는 "간재 전우 선생의 후손으로 집안대대로 물려받은 초상화를 어머니의 결정으로 기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안은 간재 전우선생이 수많은 제자들을 키운 간재선생유지(도기념물 제23호) 등 간재선생의 아름다운 공부를 몸소 실천한 숭고한 뜻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잘 보존하겠다"라며 기증패를 전달했다. 이번 기증식은 전씨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부안군청 3층 군수실에서 약소하게 진행되었으며, 기증식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는 "문화유산의 아름다운 공부를 몸소 실천한 숭고한 뜻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잘 보존하겠다"라며 기증패를 전달했다.



이춘호 문화관광과장은 기증받은 초상화는 학술연구를 통해 문화재로 지정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부안역사문화관 및 간재선생유지에 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남원시, 근·현대 유물 공개 구입

8월 31일까지...역사자료로 활용  
1894년부터 현재까지의 문서 등 포함

남원시에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남원의 근현대 유물(자료)을 공개 구입한다. 대상유물은 근현대 남원의 삶과 공간변화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유물과 다양한 자료 등으로, 구입이 확정된 유물은 남원다움관 전시보관 및 역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지금은 사라진 남원의 옛 풍경을 비롯해 재래시장, 극장 등에서의 추억과 생활모습을 담은 유물로 1894년부터 현재까지의 사진, 문서, 서적, 물품, 박

물 등이 포함된다. 유물이나 자료를 매도할 개인소장자 및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단체 등은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남원시 행정지원과(063-620-6083)로 접수하면 되고, 수집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은 본인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류홍성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남원다움관 유물 공개구입을 통해 우리가 살았던 지역의 삶과 추억을 조명하고 역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양성평등교육 강사 양성 협력기관 선정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15일부터 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신청접수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2020년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근거해 양성평등교육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국단위 확산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교육은 7월부터 11월까지 양성평등교육,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업무 종사자 및 여성학, 사회학 등 관련분야 학위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과정 ▲전문과정 ▲강의역량상과정 ▲위촉평가과정 등 총 80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참가비는 1인 30만원(식비 미포함)이며, 모집인원 30여명이다. 단, 서류전형 평가결과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양성평등의 이해, 젠더와 문화, 직업현장에서 젠더와 노동, 강의력 코칭 등으로 구성되고, 최종 평가를 통해 선발된 전문강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뱅크에 등재돼 공공기관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

으로 현장 강의 및 성평등의식 확산 활동을 하게 된다.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정책변화에 따른 강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에서만 한정해 진행됐으나, 이번 협력기관 선정으로 강사 양성 체계 다변화 및 지역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서류접수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센터 홈페이지(http://www.jbwce.kr) 접속 후 공지사항 내 서류전형 관련 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운에 센터장은 "이번 협력기관 선정으로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양성평등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교육 대상 눈높이에 맞춰 기획 및 강의를 가능한 전문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 거점기관이 됐다"며 "지역의 우수인재들의 많은 참여로 우리사회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농촌일손돕기 추진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1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시 황등면 방울토마토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농철 일손부족 심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계획했다. 이날 센터직원들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방울토마토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운에 센터장은 "이번 농촌 일손돕기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